

[보도자료] 쿠팡, ‘에너지 절약 기획전’ 중기 매출 약 10% 올라 “친환경 소비가 판로 확대로”

2026. 5. 29.

에너지 기획전 참여 중소기업 성과



- 240여개 업체 매출 평균 **10%** 증가
- 태양광 보조배터리 판매 업체 매출 **139%** 증가
‘이지넷유비쿼터스’
- 절전 멀티탭 제조 업체 매출 **48%** 증가
‘태영티에스’

*2026년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 4월 한달간 진행된 기획전 참여 중소기업 매출 평균 10% 증가 일부 업체는 139% >

2026. 05. 29. 서울 — 쿠팡이 지난달 진행한 ‘에너지 절약 장보기’ 기획전에서 참여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약 1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업체는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친환경 소비가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지난 4월 한 달간 진행된 ‘에너지 절약 장보기’는 고객이 일상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상생 기획전이다. 행사에는 24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1000여개 종류의 상품을 선보였으며, 태양광 보조배터리, 절전 멀티탭 등 일상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속형 상품군이 판매 상승을 주도했다.

대표적으로 태양광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는 20년 이상 업력의 ‘이지넷유비쿼터스’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하며 약 2.4 배에 달하는 성장을 기록했다. 절전 멀티탭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태영티에스는 에코파워탭 개별 절전 멀티탭 상품이 매출 성장(48%)을 견인했다. 이외에도 참여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절약 상품들이 기능성과 실용성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높은 선택을 받았다.

참여 기업들은 이번 기획전이 판로 확대와 매출 성장의 좋은 기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지넷유비쿼터스 측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심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며 친환경 제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태영티에스 측 또한 “절전 제품 수요 증가와 함께 신규 고객 유입 효과도 톡톡히 누렸다”고 전했다.

쿠팡은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에 참여하여 단일 유통 채널 기준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앞으로도 쿠팡은 에너지 절약 제품과 고효율 가전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친환경 소비 확산을 지속할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은 고객의 소비가 에너지 절약과 중소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획전을 통해 중기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